

# 눈이 내리고 있다

글□최용건(화가, 수필가)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이 내리는 날 밤이면 골짜기 숲 속에선 세상의 모든 선한 영혼들이 모여 저희들끼리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 같다. '평화, 평화, 평화' 라고…….

모든 생명현상에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아름다운 리듬이 깃들어 있다. 바위처럼 긴장만 하며 살아갈 수 없듯, 구름처럼 언제나 이완된 상태에서만도 살아갈 수 없다.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자리를 내어주며 교차할 때라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삶들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웃음이 많은 편이다. 살아가면서 주변에 싱싱한 생명현상을 느낄 때 미소를 짓게 된다. 생명이란 허구를 바탕으로 하여 발아된 현상이라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해보아도 기이하고 유머러스하다. 때론 세상이 우스꽝스러워지기까지 한다. 이럴 때 김삿갓 식의 웃음이라도 웃어젓혀야 하는 것은 아닐지…….

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머러스하게 보이다가도 유월 아카시아 향이 날릴 때라던가 십이월 눈이 하얗게 내릴 때면 나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을 거두게 된다. 생명의 근원적인 오라(Aura)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현듯 나는 '한날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라는 콤플렉스에 빠지곤 한다. 나의 육신과 이제껏 살아온 많은 오욕의 나뭇들을 미련 없이 모두 반납해버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요즘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여 '빙크로스비'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몇 곡 다운받았다. 가급적이면 겨우내 산 아래로의 외출을 자제하기로 한 아내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옛일들을 추억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무종교지만 한 때 우리는 가톨릭이었다. 춘천의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렸는데, 나는 종교적 신앙행위를 치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아플 때 병원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면 병원을 떠나는 것처럼 신앙은 불행할 때 찾아와 불행이 치유되면 잊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의로 가득찬 건강한 영혼이 예배처를 떠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요, 신의 뜻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 병원을 찾을 지도 모르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예배처를 찾을 수도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서다.

부언할 것은, 퇴원이 배신행위가 아닌 것처럼, 예배처를 떠나는 것 또한 신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님을 나는 믿는다. †